나주~무안공항 고속도 통행료 감면

가족에는 적용 안해 반발

공항 활성화 차원 확대 바람직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이용 승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를 승객을 데려다 주는 가족 등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나주~무안공항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나주~광주 구간 개통시까지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승용차 기준 왕복 4천원인 통행료를 전남도가 50%, 한국공항공사가 5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나주영업소 진입 후 무안공항 영업소로 나간 차량이나 반대로 통행한 차량으로 나주영업소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및 통행료 영수증과 함께 항공기 탑승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왕복 요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를 무안공항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준 뒤 나오는 차량은 항공기 탑승권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항 이용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비행기를 직접 타지 않더라도 승객을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온 사람에게는 별도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무안공항에 가족을 데려다 준 정모(38·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중국으로 떠나는 가족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요금소에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통행료 감면의 목적이 공항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승객을 태워다 주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매월동 공구상가 입주자 근저당에 묶여 7년째 속앓이

조합측, 25개 점포 16억원 은행 빚 박이사장 "자금없어 문제 해결 못해"

광주시 서구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에 입주한 공구관매업협동조합(공구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저당권 말소를 놓고 조합원들과 조합 이사장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합원들에 의한 이사장 고소 등 법적 분쟁도 일고 있다.

공구조합 분양 조합원 강모(여·43)씨 등 22명은 6~7년 전 산업용재유통센터에 들어오면서 25개 점포의 분양가 23억원을 조합 측에 완납했으나 조합측이 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점포(연 면적 84㎡)당 평균 8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연차적으로 대금을 완납했다. 현재 25개 점포 중 15곳은 등기 이전을 받았으며 나머지 10곳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25개 점포 모두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측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공구조합 박모(57) 이사장은 '조합에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며 "이로 인해 6~7년동안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강씨는 "박 이사장이 2년 전 근저당권 해제를 이유로 공구조합 조합원 300여명에게 700만~1천만원씩 모두 27억여원의 돈을 거뒀는데,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이 돈의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사본 신청을 조합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홍모(50)씨는 "지난 2001년 2월 말께 7천950만원의 분양대금을 조합 측에 완납했는데, 등기 이전은 해주지 않고 내 허락도 없이 조합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문제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시시비비는 경찰과 검찰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씨 등 조합원 15명은 지난 3일 박 이사장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 고소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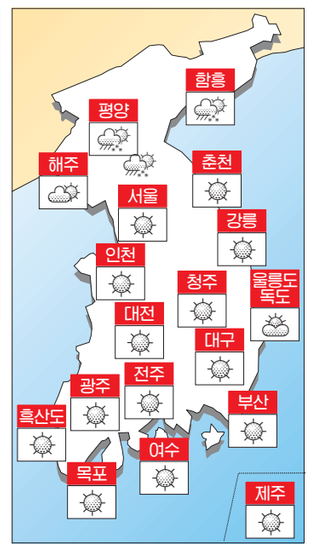
광주시 서구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전경. 지난 2001년 개장된 기계공구 전문상가인 산업용재유통센터는 분양 점포 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싸고 조합원과 이사장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봄바람 솔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2월 20일 (음 1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3~10℃
목 포	맑음	-1~10℃
여 수	맑음	1~10℃
완 도	맑음	0~10℃
구 례	맑음	-4~10℃
해 남	맑음	-4~10℃
장 흥	맑음	-5~11℃
고 흥	맑음	-3~11℃
순 천	맑음	-5~10℃
영 광	맑음	-5~8℃
진 도	맑음	-3~9℃
전 주	맑음	-4~9℃
남 원	맑음	-7~9℃
흑산도	구름 조금	2~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01:22 14:09 썰물 〈 06:47 19:24
여 수 밀물 〈 09:00 21:04 썰물 〈 02:31 15:02

▲해뜸 07:14 ▲해짐 18:19 ▲달뜸 17:27 ▲달짐 06: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 씨						
최저/최고	-2/11	2/7	-2/8	-2/8	-1/6	3/6

초·중 교원 인사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19일 전남도내 초·중등 교사 3천31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 따르면 중등교사는 타 시·도간 교류 60명(전출 49명, 전입 11명), 관내 전보(중등 1천455명, 특수·보건·사서·영양 58명) 1천513명, 신규임용(중등 118명, 특수·보건·사서·영양 59명) 177명 등 1천750명이 이동한다.

또 초등교사는 시·도간 교류 90명(정출 77명, 전입 14명), 관내 전보 1천43명(초등 853명, 유치원 109명, 특수·보건·사서·영양 81명), 신규임용(초등 387명, 유치원 30명, 특수·보건·사서·영양 16명) 433명 등 1천567명이 발령받는다.

교장·교감 및 교육직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 취임식(25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민주화운동 참여 3명 전남대, '명예 졸업장'

사망·부상 학업중단 학생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전남대 학생들에게 명예 졸업장이 주어진다.

전남대는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자살한 고(故) 기 혁(1984년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입학)씨,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문승필(1990년 공과대 화학공학과 입학)씨, 5·18민주화운동 참여 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한태준(52·1975년 여수캠퍼스 전신 여수수산전문학교 증식학과 입학)씨 등 3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운동가로 유명한 기세문씨의 아들인 기 혁씨는 대학 입학 후 이념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학교 당국의 조치에 항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승필씨는 대학 재학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2년 의문의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한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해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으며, 그 때 받은 충격과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투병생활 중이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한씨를 명예졸업장 수여 권고 대상자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명예졸업장은 26일 오전 각 단과대학별로 열리는 학위수여식 현장에서 유족이나 본인에게 주어진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혼사유, 외도·폭력↓ 경제·성격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석

우리나라 부부들의 주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폭력 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일 1956년 개소한 이래 2006년 말까지 50년간 상담한 221만여 건 중 본부에서 진행된 면접상담 42만8천243건의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50~1960년대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배우자 직계 가족과의 갈등이 주요 이혼사유였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외도(45.7%)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폭력이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27.8%)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1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의 이혼 사유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43.5%, 배우자의 가출이 22.7%, 배우자의 외도가 21.5% 순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혼 상담이 증가해 전체 상담의 53.3%에 달했으며 남녀 모두 '기타 중대한 사유'(남 52.5%, 여 39.4%)를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꼽았다. 1990년대 후반 시작된 외환위기로 경제갈등을 호소하고 이혼 사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남성의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계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 중학교서 후배 폭행 도교육청, 진상 조사 나서

진도 모 중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또 진도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졸업을 이틀 앞둔 진도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6명이 2학년 학생 8명을 "건방지다"며 인근 초등학교 공터로 데려가 구타해 8명 모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폭행한 학생 중 특히 A군이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구타해 왔음에도 학교에서 관리를 잘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진도 전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법관 신상정보 유출땐 민·형사 처벌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최근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대법원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규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인터넷망이나 포털사이트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 고소,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